하이키 리이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은?" 진우 스님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여라"

진우 스님, 서울국제불교박람회서 청년들과 담마토크

아이돌그룹 하이키 참석 고민 상담
진우 스님 "청년시절 번아웃 왔다"
청년세대 고민 공감하며 조언 건네

이민우 기자 alsdn285@naver.com

'재밌는 불교'를 직접 접할 수 있는 2024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4월 4일 SETEC 서울무역컨벤션센터에서 청년들의 높은 관심 속에 개막한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박람회장에서 청년들을 직접 만났다. 담마토크를 통해 청년대표 인기 아이돌그룹 '하이키'와 소통하고 청년세대들이 겪는 다양한 인생 고민과 그에 대한 해답을 전하면서 청년들의 불안함을 풀어주고자 노력한 진우 스님은 그만큼 청년세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진심이었다.

진우 스님은 담마토크에 앞서 스스로를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소개하지 않았다. 스님은 종교인으로서의 권위가 청년들과의 거리감을 만든다는 생각에 자신을 '1980년대부터 인터넷 컴퓨터를 통해 프로그래밍을 해온 사람' '드론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 '명상 콘텐츠를 구독자들에게 뉴스레터로 보낸 인플루언서 얼리어답터' 등으로 소개하면서 청년들과의 거리감을 좁혔다.

진우 스님은 직접 박람회장을 찾아 청년들을 만난 이유를 "젊은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스님은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참석하려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와 불행감을 느끼는 청년들을 옆에서 봐왔기 때문"이라며 "청년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힌트를 주고 불교의 명상을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청년들의 고민을 듣기에 앞서 먼저 행복과 불행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중도의 가치와 욕심없는 삶의 중요성을 설했다. 스님은 "태어난 시간이 있다면 죽는 시간도 있고 밀물이 있다면 썰물도 있다"며 행복과 불행, 즐거움과 고통의 질량은 같으니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중도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한 "현재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욕심이 없다. 욕심이 큰 사람은 그만큼 불행한 일을 많이 당하게 돼있다"며 청년들에게 물질적인 욕심을 버릴 것을 주문했다,



진우 스님이 아이돌그룹 하이키 멤버들과 담마토크를 하며 청년들의 고민에 조언을 하고 있다.

법문 이후 본격적인 고민상담이 이뤄졌다. 진우 스님은 '생각이 너무 많은 데서 오는 괴로움'과 '자기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번아웃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등 현대사회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대표적인 고충을 직접 들었다.

하이키 멤버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풀어놓으며 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그룹 리더 서이 씨는 "생각이 너무 많을 때는 걷거나 운동을 하는 등 몸을 움직인다"며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진우 스님의 생각을 물었다. 진우 스님은 이에 "생각이 너무 많을 때 몸을 움직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그보다 생각이 많은 상태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생각이 많고 적음에 집착하지 말고 편하게 내려놓으라"는 해결책도 제시했다.

그룹 보컬 리이나 씨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갖춰나가다 보면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불교에서는 하나가 생기면 그 반대의 것도 생기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사랑하지 않는 마음도 생긴다"며 "상반되는 두 감정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니 스스로를 사랑하느냐 않느냐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해석을 더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설했다.

번아웃에서 벗어나는 법을 묻는 세 번째 질문에 진우 스님은 자신의 과거 경험을 설명하고 청년들의 고충에 공감했다. 스님은 "나 역시 청년일 적 우울증과 번아웃을 겪으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다"며 "출가한 이후 그때를 되돌아보니 모두 감정에 집착한 결과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스님은 "좋은 감정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편하게 해야 번아웃에서 벗어나 좋은 휴식도 취할 수 있다"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진우 스님은 감정을 내려놓고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최고의 습관으로 명상을 소개했다.

진우 스님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명상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떨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며 "명상을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장소와 시간, 방법보다는 꾸준히 실천하는 끈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들에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남 탓을 하면 업으로 되돌아온다. 스스로 컨트롤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명상을 적극적으로 권한다"고 실천을 당부했다.

동국대, '석전 박한영 전서' 발간 추진

동국대 개교 120년 행사 일환
석전 스님 저서·저술 등 '망라'
〈각종강요〉 등 새롭게 발굴해
2026년 1차분 10권 발간 예정


선운사 석전기념관에 있는 석전 스님 진영.

근대 불교학과 불교 교육 발전의 초석을 놓은 근대 선지식 석전(石顚) 박한영(朴漢永) 스님의 저서와 저술을 망라하는 전서 발간사업이 추진된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4월 2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석전 박한영 전서' 발간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석전 박한영 전서' 발간 사업은 윤재웅 총장이 총장 선거 당시 건학이념 구현 공약으로도 내세웠던 것으로 동국대 개교를 이끈 선지식 석전 스님을 선양함으로써 동국 정신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이를 위해 동국대는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에서 석전 전서 간행팀을 지난해 7월 출범했다.

석전 스님의 자료는 중앙학림과 중앙불전의 교재로 사용했던 등사본 단행본과 노트 필기류, 그리고 활자본 등 다양하다. 1910~20년대 불교잡지인 〈조선불교월보〉 〈해동불보〉 〈불일〉의 편집인으로서 200여 편이 넘는 논설 및 시문·번역문이 있다. 여기에 불교 외 일반잡지, 신문 등에 다양한 글이 산재해 있고, 기존에 자료화되지 않은 비문과 현판, 서간문 등이 전국 사찰의 비림과 성보박물관에 산재해 있다.

기실 석전 박한영의 영향을 크게 받은 한용운, 조지훈, 서정주의 전집이 간행된 바 있고, 국학자로서 석전의 영향을 주고받은 최남선, 이광수, 정인보의 전서가 간행됐지만, 유독 석전 스님의 글은 본격적으로 집성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석전 스님의 자료는 불교학 전문가만 이해할 수 있는 교재가 많고 일반 독자를 위한 글이라도 순한문으로 된 경우가 많아 해석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잡지 기고들은 국한문 혼용의 글이 다수 있지만 대부분 현토체여서 쉽게 읽히지 않는다. 자료의 분산, 대중적이지 않은 불교전문 교재와 해설, 난해한 한문 문장으로 인해 석전 스님의 저술과 글을 집성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이번 동국대의 사업 추진으로 석전 스님의 저서와 저술을 망라할 수 있게 됐다.

전서 발간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문학연구소는 저술편과 어록보유편으로 나눠 1, 2차분으로 전서를 출판할 계획이다.

1차분으로 발행되는 전서는 〈석전시초〉 등 단독 저술과 잡지에 연재한 연재물 등이 주를 이루며, 총 10책 발간이 계획돼 있다. 특히, 1차분 전서에는 최근 송광사에서 발굴된 〈각종강요〉나 〈종교학〉 강의노트 등 신발굴 자료들이 포함돼 의미를 더한다. 1차분 전서는 2026년 6월 동국대 개교 120주년 기념행사에서 봉정될 예정이다.

2차분 전서는 잡지 소재 200여 편의 글, 새로 발굴한 비문, 현판 등을 탈초·주해·윤문해 7책으로 출판하고, 자료 소개만으로 충분한 의의가 있는 자료를 3권의 자료집으로 2027년까지 펴낼 계획이다.

한편, 한국문학연구소는 오는 6월 27일 오후 1시 교내 문화관 4층 초허당 세미나실에서 '석전 박한영 스님의 신자료 발굴 성과와 전서 편찬의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신중일 기자

"인류발전 기여하는 연구기관 거듭나자"

한마음과학원, 3월 30~31일
'모두의 내면 능력' 주제로
진주지원서 수련회 개최해



한마음선원 산하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 스님, 이하 과학원)은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한마음선원 진주지원에서 '모두의 내면 능력'을 주제로 회원 수련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수련회에는 과학원 원장 혜수 스님(한마음선원 이사장)과 과학원 운영위원장 혜찬 스님, 진주지원장 혜근 스님을 비롯한 40여 명의 과학원 회원들이 참석했다.

입재식에 이어 진행된 프로그램 '그때 그 마음'에서는 회원들은 마음속 생각과 체험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마음공부의 소중함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공양 후 진행된 촛불재에서는 자신의 내면을 밝히려는 참가자들의 간절한 염원을 되새겼다.

이와 함께 수련회에서 참가자들은 대행 선사 탄신 100주년을 앞두고 과학원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 발전과 성장을 위한 화합과 수행의 의지를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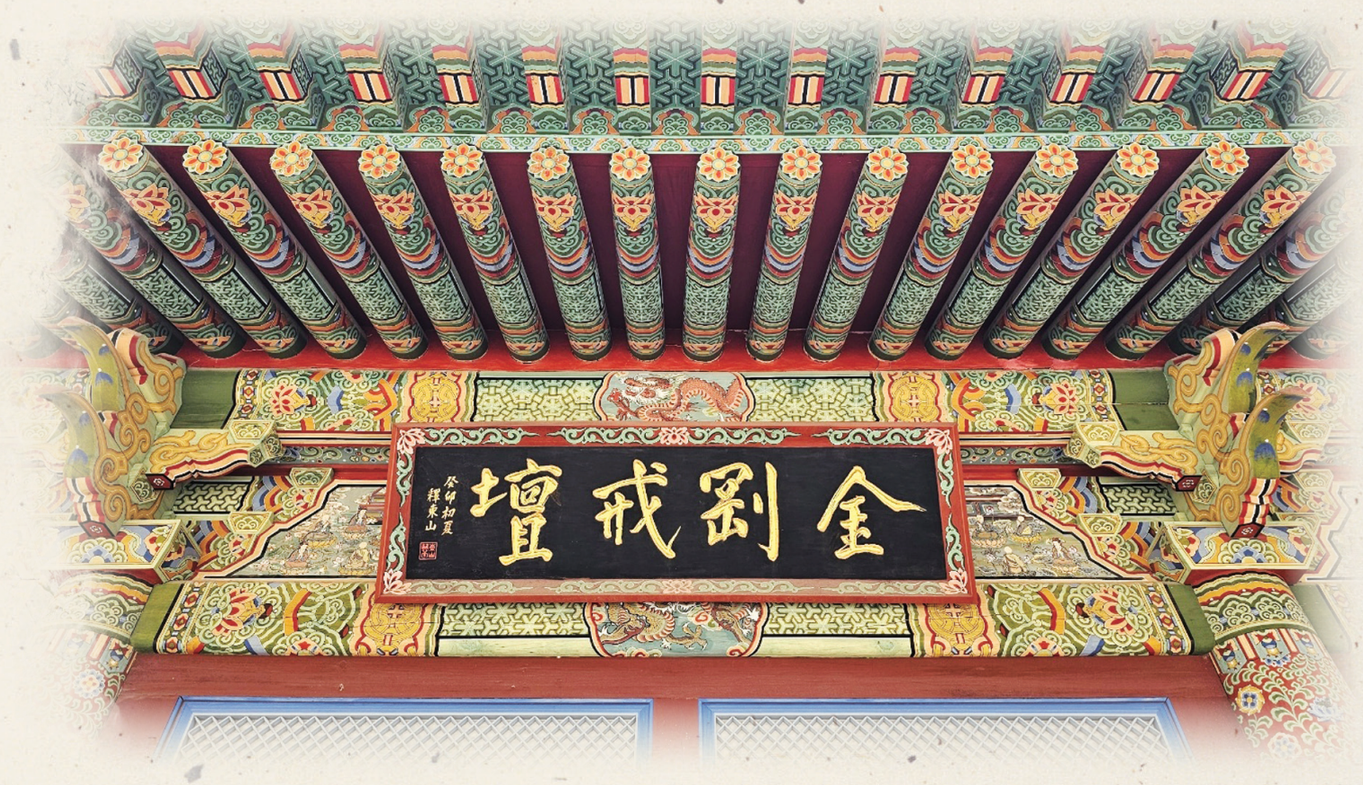
과학원 원장 혜수 스님은 "한마음과학원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지난 28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행 큰스님의 뜻에 따라 인류발전과 생명진화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 된 것 같다"면서 "여러분 모두 내면의 주장자를 세우고 정진해달라"고 회원들에게 주문했다.

신중일 기자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금강계단 제124회 보살계 수계산림

대한불교조계종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오래된 제124회 금정총림 범어사 보살계를 봉행합니다.
팔만사천 법문의 실천 요체인 범망경 보살계는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들에게 전하신 심지법문으로 불교의 수많은 수행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보살계를 받아서 생사해탈의 큰 인연 공덕으로 진정한 불제자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일 시 | 불기2568(2024)년 4월 22일~23일
(음3월 14일~15일) 오전 10시
장 소 | 범어사 금강계단
접 수 처 | 범어사 원주실(051-508-3636)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전계대화상 범석 수불
주 지 산해 정오